

【한국어】

메구미 : 어! 과자 가게다.

가오루 : 이 가게 아직 있었네. 어릴 때 잘 왔었는데.

메구미 : 그랬구나.

가오루 : 어! 이 사탕. 끈을 잡아당겨서 큰 걸 맞추는 거였지!

가오루 : 해 볼까?

메구미 : 진짜 할거야?

가오루 : 저기요, 이거 하나 주세요.

가게 주인 : 네. 한 번에 10 엔.

가오루 : 이건가?

메구미 : 잠깐만. 이쪽이 좋을 것 같은데.

가오루 : 알았어! 자, 그럼 당긴다.

가오루 : 맞췄다! 잘 맞추네. 가

가게 주인 : 축하합니다. 큰 걸 맞췄어요. 자, 여기 있어요.

